

## [ 사회 ]

# “공무원 시험마저 막하나”

정부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계획에 ‘공시족’ 동요

## 포기자 속출…학원가 수강생 빨길 뚝

정부가 지난 1일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겠다’는 지자체 조직개편계획안을 발표하자 지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속칭 ‘공시족(公試族·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계획안이 강제퇴출이 아닌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되레 신규채용 인원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시족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마다 평균 1만명이 출어될 것이다”며 “자연감소를 통해 1만명이라는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신규채용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9일 오전 공무원시험 전문학원이 밀집된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만난 공시족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2년째 지방 공무원시험을 준비중

인 김모(30)씨는 “정부에 발표대로라면 향후 2년간은 신규공무원을 뽑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나이도 적지 않은데 공무원 임용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아서 일련회사에 응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방침도 공시족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어렵게 임용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항상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성과 달성을 암울에 시달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 9급 임용시험 당시에 정자인 최모(여·23)씨는 “공무원 임용의 문이 와야지기도 했지만 과거처럼 ‘공무원=철밥통’이란 인식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이 떨어진 만큼 공기업이나 대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공시족들의 동요는 이달 수강생 모집인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두 달에 한 번 종합반과 단과반을 모집하는 동구 예술의 거리 학원가에는 수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5·18 역사기행

전교조 광주지부는 9일 단기방학 동안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18 역사기행’을 가졌다. 이날 기행에 참가한 광주시내 30여개 초·중학교 450여명은 옛 전남도청·상무관·국립5·18민주묘지로 이어지는 5·18 유적지를 순례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첫 우주인 이소연씨

### 14일쯤 퇴원

지구 착륙 당시 받은 충격에 따른 허리 통증으로 지난달 29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항의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이 이소연(29)씨가 14일 퇴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9일 “항의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씨의 건강이 호전돼 14일 오전 퇴원, 본격적인 공식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과부 등은 이날 “이씨의 주치의인 정기영 항의원장이 ‘지난 달 29일 입원 후 통증 부위를 잡은 치료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현 추세로 볼 때 14일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퇴원 당일 항우연을 거쳐 모교인 KAIST를 방문해 후배 과학도들에게 우주에서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답양 다이너스티CC 방진호 쟁무이사(왼쪽 두번째)가 8일 담양 깊은 실마을 독거노인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 담양다이너스티CC, 아버이 날 맞아

#### 독거노인들에 1천만원 위문금 전달

담양다이너스티CC(회장 허길순)는 지난 8일 아버이날을 맞아 담양읍과 금성면 등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주변마을인 독거노인 40명에게 총 1천만원의 위문금과 카네이션 꽃바구니·케이 등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위로를 약속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光州日報

###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산행 안내 광고는  
12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방 박준덕(501214-10523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3자에게 대한 공고, 최  
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  
월내에 제3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  
하면 청산에서 제의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특별기록부  
2008년 5월 20일

공고인: 이충신, 박소영, 박민재  
한정승인수리일: 2008. 4. 30  
공고기간: 2008. 5. 10 ~ 2008. 7. 9

연락처: 목포시 산림동 1769 한성타워  
10층 108호  
이충신 (010-626-4291)

## 주유소매매

• 화순읍내 국도변 30m×10m 코너  
• 대지 1,186㎡ 건물 471㎡(케노피포함 2층)  
• 맨토 1800M 4기, 주유기 5기  
• 매가 11억(천만원+증자액+천포함)조정가  
☎ 011-413-6051(주.야)

## SONY의 모든 것

www.119accessories.co.kr  
소니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 전국 배달 미제정품

※ 날개판매, BOX 파격할인

※ 1회 복용(72시간 지속)

▶ 약국납품용 ◀

☎ 010-6733-3877

## DVD.CD 제작전문

상품홍보, 행사, 기념앨범

▷ 기업, 종교, 병원, 학교 등

• 광주본사: (062)223-1234~5

• 서울사무소: (02)420-4691

www.dvdq.co.kr

(주) 광주사운드

HYUNDAI

이 형 일

TEL : 061-334-4100

FAX: 061-334-9010

C.P. : 011-9603-0456

남명 대리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공시최고

아래기재 종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8. 8. 18.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로 상실하여 종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 7일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유재광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2008카공 6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죽동 산 6-2 시장 회관호

2008카공 76 권혁수 여수시 문현동 문현주공아파트 9-502 송정정소: 여수시 봉산동 279-8 여수봉산동 우체국내

2008카공 77 (주)현대부동 승현시 조례동 1320-9 대표이사 유선용

2008카공 78 이순진 전남 보성군 겹겹면 속리 517

2008카공 79 신원식 순천시 연현동 부암리 1203-1106

2008카공 80 박귀진 순천시 황진면 내구리 191

2008카공 81 송현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210-2 수이빌라 가-402

2008카공 83 정장숙 여수시 회장동 무선주공아파트 302-1405

2008카공 84 김영희 순천시 연현동 호반리원 시밀1차 아파트 108-106

## 시기일정

2008카공 85 흥자경

2008카공 87 빠현체

2008카공 88 박찬호

2008카공 89 김상수

2008카공 90 정상식

2008카공 91 이종기

2008카공 92 정보연

2008카공 93 정자혁

2008카공 94 양동준

2008카공 95 곽연식

2008카공 96 정현호

2008카공 97 이정희

2008카공 98 김현숙

2008카공 99 김현숙

2008카공 100 김현숙

2008카공 101 김현숙

2008카공 102 김현숙

2008카공 103 김현숙

2008카공 104 김현숙

2008카공 105 김현숙

2008카공 106 김현숙

2008카공 107 김현숙

2008카공 108 김현숙

2008카공 109 김현숙

2008카공 110 김현숙

2008카공 111 김현숙

2008카공 112 김현숙

2008카공 113 김현숙

2008카공 114 김현숙

2008카공 115 김현숙

2008카공 116 김현숙

2008카공 117 김현숙

2008카공 118 김현숙

2008카공 119 김현숙

2008카공 120 김현숙

2008카공 121 김현숙

2008카공 122 김현숙

2008카공 123 김현숙

2008카공 124 김현숙

2008카공 125 김현숙

2008카공 126 김현숙

2008카공 127 김현숙

2008카공 128 김현숙

2008카공 129 김현숙

2008카공 130 김현숙

2008카공 131 김현숙

2008카공 132 김